중기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우수

피치케이블 발열의자 · 이오렉스 배관 스케일 억제장치
제품 판로 개척 통해 평균 매출 증가 효과 거둬

탄소소재 응용 전문기업인 (주)피치케이블은 제품 기술개발에 자금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 '탄소섬유 발열체를 이용한 발열의자'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벤치의 온열효과를 내기 위해 탄소섬유 발열장치를 적용한 제품으로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제품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구매를 기피하자 제품 판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피치케이블은 공공기관 판로 개척의 도움을 받고자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능인증제도에 도전해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 성능인증서를 획득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전주시, 보령시 등에 9억5,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고 진안군 등에 다수 계약이 진행 중이다.

㈜피치케이블은 지난해에 매출이 2억2,000만원 정도인 창업기업이었으나 기술개발성공과 국가인증 획득으로 올해 15억 정도의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수처리 전문기업인 ㈜이오렉스도 '이중탄소를 적용한 탄소전극이용 배관 스케일 억제장치' 제품을 기술개발 후, 판로확대를 위해 성능인증, NSF를 취득했고 이 후 신뢰성 향상에 따라 유럽 수출계약(12만달러) 성공 및 미주 등에 계약(110만달러)이 진행 중이어서 매출신장에 큰 기여를 했다.

배관 스케일 억제장치는 기존 수처리방식에서 발생되는 비환경적.비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전극을 사용해 내부부품 교환 없는 무동력, 무화학약품의 환경 친화적인 부식억제장치이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기술개발제품 기술력을 국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제품 판로 개척을 통해 평균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아울러, 도내 지역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계약된 금액을 보면 작년 52억(18건)에 비해 올해 계약 금액은 88억(14건)으로 구매계약 금액이 63% 향상됐다.

올해 발급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성능인증서는 25건이 발급돼 전국 277건 대비 8%로 지역 경제규모인 2.8 %에 대비 3배 높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4년 21건에 비해서 20% 증가됐으며 지난해 24건에 비해서도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중기청의 성능인증률이 높아진 이유는 기관장의 관심과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컨설팅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합성심사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다음 기회에 적합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주고 있어 타 지역보다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신청한 성능인증 제품의 초기 합격률은 71%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제품에 대해서도 7개 제품이 기술지도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에 힘쓰고 성능인증 획득에 도전하는 분위기 장을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구매 책임자 면책특권', '성능보험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관심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은 27일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김규태 도교육청부교육감, 이종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도내 기관장과 농협 임직원들이 점심 메뉴로 삼계탕을 시식하며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농협,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펼쳐

전북농협은 AI발생에 따른 양계농가 지원을 위해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27일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김규태 도교육청부교육감, 이종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도내 기관장과 농협 임직원들이 점심 메뉴로 삼계탕을 시식하며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발생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닭을 삶아 먹을 경우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소비감소로 인해 닭사육 농가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해 실시됐다.

전북농협은 내년 1월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먹는날로 지정해 소비촉진에 지속적으로 나설것이며 명절전에는 도내 복지시설에 삼계탕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안재용 기자

전북경제대상 수상자 확정

가온전선 전주공장 · 한재현 한호 회장 · 재성

〈대상〉 〈경영인 부문〉 〈기업 부문〉

전주상의, 지역발전 기여 공로 인정

올해 전북 경제발전에 공헌한 기업과 인물을 선정하는 제13회 전북경제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북경제대상 대상에 가온전선(주)전주공장, 본상 경영인 부문에는 한재현 (주)한호 회장, 본상 기업부문에 (주)재성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으로 선정된 통신케이블 전문제조업체인 가온전선(주)전주공장은 지난 2011년 박영묵 통신사업부문장 부임 이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부진한 사업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현재는 향후 차세대 10G 통신에 사용하는 LAN케이블을 개발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등 산업의 동맥인 케이블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일조해 왔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종 사회공헌에도 기업의 책무를 다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본상 경영인 부문 수상자인 한재현 (주)한호 회장은 지난 1973년 자동차 산업에 첫발을 내딛은 후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의 상용차 바닥용 합판을 납품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후 1991년 (주)한호를 설립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목재 가공시 톱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가공방법에서 탈피해 1995년 국내 최초 목재 가공에 레이저 장비를 도입해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1994년에는 본사를 부산에서 완주로 이전해 당시 영남권에 치중돼 있던 합판 가공 및 시공기술을 전북지역에 흡수시켜 전북지역의 목재가공 기술 등의 발전에 공헌하는 등 전북지역의 경제발전에 헌신해 경제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본상 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점착제 전문 생산기업 (주)재성은 1992년 창립 이래 안광섭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인재경영, 기술경영, 품질경영, 소통경영이라는 4대 경영원칙 아래 100년 기업을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박영묵 사업부문장

한재현 회장

안광섭 대표이사

또한 기술연구소를 설치해 환경과 소비자 중심의 각종 기능성 점착제를 개발 공급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노력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안광섭 대표이사는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경기도에 있었던 본사와 자신의 주소지를 남원으로 옮기고, 설비증설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지역발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됐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이웃돕기성금 1800여만원 기탁

전북은행은 지난 26일 본점 1층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1,8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이웃돕기성금은 전북은행 전 임직원의 급여 1% 나눔으로 마련됐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전북은행 임직원들은 급여 1% 성금을 통해 나눔을 연중 실천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 농산물 통합마케팅 3000억 시대 열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 달성

올해 전북 농산물의 통합마케팅사업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던 지난 2012년 1,142억원으로 1,000억을 돌파한데 이어 2014년 2,000억원, 그리고 이번에 마침내 3,000억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통합마케팅 3,000억원 달성은 전북보다 원예사업 규모가 3배 이상 큰 경북에 이어 두 번째 달성으로 그 의미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전북농협은 전북도와 협력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통합마케팅사업을 최우선해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산지유통 종합대상 4년연속 수상, 연합사업 업적평가 4년연속 1위,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3년연속 장관상 수상, FTA과수산업 2년연속 연차평가 최우수 등급'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번 통합마케팅 3,000억원 달성을 더해 명실공히 '산지유통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북농협은 소량 다품목의 열악한 산지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 통합마케팅을 넘어 도단위 광역마케팅 추진으로 약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최대소비처인 수도권을 집중공략, 공동판촉행사를 16회 실시하는 등 광역마케팅의 틀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개공, 만성지구내 공공임대 832세대 착공

전북개발공사는 27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및 도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여를 위해 추진 중인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가 첫 삽을 떴다.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B2블록은 지하 1층에서 20층, 6개동, 832세대(전용면적 84㎡)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다.

조화로운 입면디자인과 단지배치가 돋보이며, 특히 최근 분양아파트 트렌드인 무인택배시스템, 맘스쉘터,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부대복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재용 기자